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고난 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꼭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둔 가정이나 아니더라도 교육의 문제는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

공공부문의 혁신이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교육분야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질수록 교육계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각별한 역량과 자질의 엄격성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적으로도 교사에게는 거의 성직자적 도덕성과 완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최근 교육부가 부적격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은 만시지탄의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성적 조작이나 급품 수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사는 법적 징계를 강화하고, 이후 교단에 되돌아오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예고에 이미 교원관련 단체들의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권위 추락이나 교사에 대한 폄하 의식 등을 이유로 반발을 표했다고 한다. 또 자정에 의한 교단의 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인성적 판단에



불자 세상보기

최순열  
동국대 사범대 교수

교사들이 바로 서는 길

의해 초래되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실 교육정책 당국이 추진하던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무능교사 퇴출 방안이 빠진 채 표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차체에 교단에 서 영구 퇴출되어야 할 부적격 교사의 기준이 좀 더 엄정해야 한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주로 교사의 인성·도덕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수업 능력 및 학생지도력 등 교육기술의 기준도 더 보태야 입법 취지가 살아날 것

으로 보인다.

교육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교사의 자질과 자격이 소정의 학업과정에 의한 자격증 획득과 일회적인 임용고시에 의해 판단될 뿐, 재검증 절차를 통한 추가 선별로 육성을 가리지 않는 것은 너무도 느슨한 사회적 방조다.

그러나 결과론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와 같은 규제로서 교사의 자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만으로는 교단의 정화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없다. 결과를 놓고 처벌을 통한 경계심 강화보다 예방적 유도가 전제되는 제도가 병행

되어야 한다. 먼저, 교원의 급여를 포함한 후생 복지가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수업량과 지도화 생수의 하향조정, 잔업과 부수행정업무의 경감,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고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교사 스스로의 확고한 정체성과 자존감의 강화를 교원 비리가 근원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교원양성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대학·사범대학 그리고 교직 이수 과정 등을 통해 교사가 양성되고 배출되는 제도로는 교사에 요구되는 기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데는 역부족이다.

철저한 전인적 자질과 교육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학·법학전문대학원 수준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교사의 임용고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필답형의 교육학 및 전공교과 시험을 통한 정량적 평가만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금과 비교육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교사의 재교육 시스템이 보다 확고하게 갖춰져야 한다.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담보한 교육 기회를 정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유도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노력과 아울러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시도해야 교단 정화와 교육의 정상화는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눈

'종단 화합을 위한 53 선지식 선언대회'가 8월 30일 열렸다. 정부와 언론기관에의 투서에 의지해 종단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불순한 세력에 대한 경고와, 불교의 근본정신에 의거하여 종단의 화합을 이룩하려는 여망을 강하게 호소하는 대회로 예상된다.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한 '의혹'을 중심으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종단의 건강을 청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종단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이용되면서 불교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을 우려한 종단 종진 스님들이 나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선언대회가 열려야 할 정도로 승단의 분열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선은 깊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고자 나선 53 선지식들의 결단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

53선지식, 화합의 촉매되길

그러나 이런 대회 자체가 하나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충분히 경계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동의 출발점에서부터 투명하고도 정당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목적을 표방해야만 할 것이다.

승단이 외부의 압력에 모독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모독당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요소를 해결하는데 과감하지 못한 끊임없이 모독이 올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세력 또한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속세의 법으로 출가의 법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승단의 비리는 내부적으로만 해결하자고 해서 적당한 온정주의에 머무르는 미봉책 밖에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불순한 의도로 승단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방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요, 우선은 이 급한 불을 끄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할 때 53선지식의 움직임이 종단 화합을 위한 진정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80년대 법난의 아픈 기억이 있기에 이제 정권과 언론에 결탁한 종단 흔들기는 천만 불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연대' 민영 심민섭. Illustration of a man with a staff and a woman with a staff, with a large '우' character.

이렇게 들었다 위험한 급식. 작은 악을 대단지 악게 알아 재량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반찬에서 머리카락은 기본이고 손톱에 벌레, 스테이플러 찰집까지 나왔다. 식당의 위생상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장사가 될까? 하지만 버섯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그것도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실급식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칼날이 나와 대구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찹쌀세미와 담배꽂지도 나왔다. 울주에 결식아동들에게 부실 도시락 등을 보내 국민들을 분노케 하더니 이제 급식비를 내고 먹는 음식도 부실명어리로 전락해 또 한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의 목숨이 돈 한 톨 더 버는 것보다 못했다. 영양소가 골고루 잘 갖춰진 급식을 먹어도 부족할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학부모 내지는 지역 교육청의 조사 정도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정부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 돈을 더 벌려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먹거리가 비위 생략이다 못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되겠는가. '온갖 중생이 지은 행위는 백겁을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인연이 결할 때는 때에 가서는 응당 과보를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부처님은 <광명동자인목경>에서 말씀하셨다. 위험천만한 부실급식을 제공한 급식업체나 그것을 수수 방관한 학교 관계자들 모두 그 업보를 어찌 갚으려고 그러는 것일까. ■ 강지연(해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월간중앙' 백배 사죄해야. <월간중앙>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교계를 폄하하는 기사를 8·9월호 연이어 게재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직해야 할 언론이 사회의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력화 되어온 재벌언론의 횡포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특히 <월간중앙>은 삼무소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하의 글과 공정성을 잃은 기사를 실어 2천만 불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역불승유의 가혹한 탄압정책으로 설자리를 잃고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은 조선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고통을 함께하며 자비행으로 수많은 승병들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했고, 일제강점기에는 경허·만공선사로 이어지는 눈 밝은 선지식들이 일본의 잘못을 질타했다. 하지만 당시 나라의 주류였던 타락한 양반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듬기보다 이전투구의 치졸한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월간중앙>에 실린 것과 같은 음담패설을 즐기며 우리 문화를 어지럽히더니 결국 국권조차 빼앗겼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말없이 이끌어 온 불교를 <월간중앙>은 '갓 쓴 양반들의 성담론'이라는 해괴한 글로 불교를 우스개거리로 전락시켰다. 이들이 불교를 한낱 저자거리 뒷골목의 조롱거리로밖에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작태다. <월간중앙>은 사회전문이라는 언론의 양심은 고사하고 이 시대를 망국(亡國)으로 이끄는 현대판 '갓 쓴 양반'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월간중앙>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배사죄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불교의 사회참여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반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에 의지해 중생들의 참된 행복을 구현하는 불교의 이상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불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개혁사건을 모두 파헤치고 일부 빼돌려진 시각을 가진 유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불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범상(뫼다뉴스) 초심자에 대한 배려 아쉽다. 얼마 전 겪었던 황당한 일이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 철수가 넓은 어머니와 함께 모 사찰을 찾았다. 평소 어머니와 딸과 함께 절에 가보고 싶다는 바람을 들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나 나도 직장 생

심마니 토종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어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주)현풍F&B 02)447-9114

썩뚝! 썩뚝! 온구(썩뚝)기 개발! 연기와 화상에서 완전 해방된 온구(썩뚝)기 민간요법, 대체의학계의 기본이 되는 썩뚝! 한의원, 피부관리실, 경락·스포츠 맛사지실, 다이어트방 및 가정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오행온구(썩뚝)기 5개의 썩뚝으로 5개의 혈자리에 동시에 썩뚝을 할 수 있다. 대리점 및 썩뚝체험실 모집